

내 한 생각에 행복 열쇠 있어

로 바꾸어 놓았다. 천자암에서 일념정진을 거듭하던 어느 날 환하게 밝아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천자간에 내놓은 오도송은 천자암 법당의 주련이 되어 눈 밝은 참배객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스님의 오도송을 듣고 싶다고 했더니 용이 새겨진 버루에 먹을 갈아 붓글씨로 써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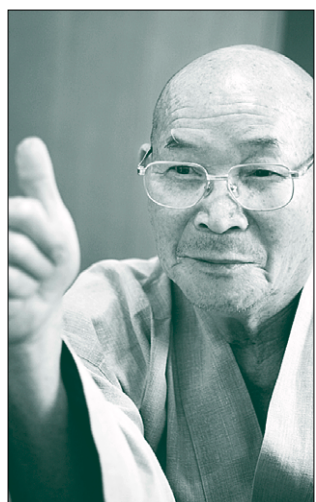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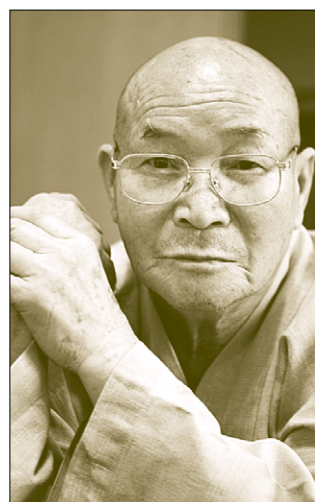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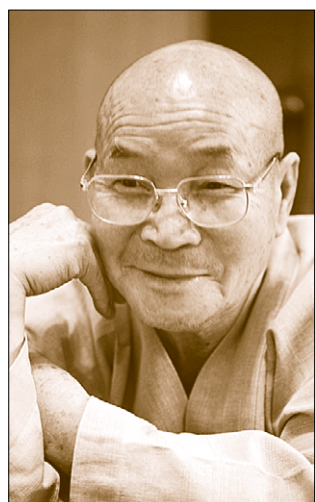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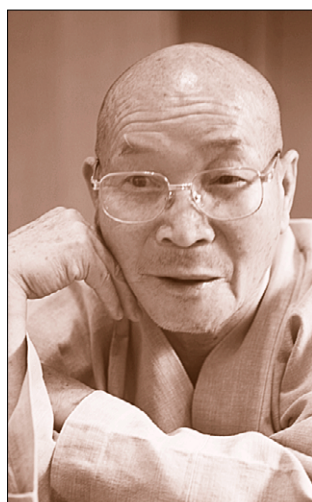
通玄-鴨萬機伏(통원일함만기복)
言前大機傳法輪(언전대기전법륜)
法界長月一掌明(법계장월일장명)
萬古光明長不滅(만고광명장불멸)

진리를 통하여 한 번의 활로 온갖 번뇌망상 굴복시키니/ 말 이전의 한 소식이 법문을 전하노다.

어떻게 하면 세속의 사람들도 산승의 스님들처럼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여쭙었다.

“일체 중생이 바라는 것이 행복인데, 사람들은 행복과는 반대로 살아가. 마음으로 바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려면 밝아야 해. 마음도 밝아야 하고, 보고 듣는 것도 밝아져야 해. 세상에 가능, 불가능은 내 한 생각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 내가 평생 동안 본 것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자기 분야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과거와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볼 줄 아는 능력은 특출한 것이지만 수행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야. 나를 버리면 본래 성품이 드러나고 내가 본래 불성을 가진 부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야. 깨달은 사람이 많으면 사회에서나 중생사이에서

“넌 몇 때를 가지고 있냐?”
“스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저도 한 첩이 아직 끝이 안 났어요.”
“내 뒤만 따라다니면 넌 언제 부처가 될래?”
“스님 말씀대로 할 것 같은데...” 이라고 단서를 붙인 것이 못마땅하신 것이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는 임제 선사의 서술이 푸른 기상을 천자암의 활안 스님에게서 볼 수 있었다.
“넌 여기를 안 와야 될 건데, 괜히 여기 와서 살아나가지도 못하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냐?”
“너를 불쌍히 여겨 이제 마지막으로 막을 지어서 한 마디만 묻겠다. 너, 가지 말고 여기에서 마누라 노릇을 해라. 그러면 부처가 될 것 아닌가. 계산이 맞나 안 맞냐? 계산이 맞나 안 맞냐?”



법계의 달빛이 한 손바닥 안에서 밝았으니/ 만고의 광명은 다함이 없네.

“요즘을 죽구시할 하는 것을 보면 실력 있는 선수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발이 공을 따라 갈라하니깐 실패지. 공이 발을 따라오도록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이성계는 한밤중에 활을 쏘는데 백발백중이었어. 그 정도는 되어야지. 시간과 공간은 심성에서 나온 거야. 심성이 그러럼 준비를 하면 불가능은 없는 거야. 심성이 통달되면 다 해결되는 것이야. 천지(天地)가 지혜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각자 타고난 생명이 자기를 밝히는 것이야. 그러니 상대방한테는 속어도 자신한테는 속지 말아야지. 내가 밝으면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중생이 전부 그 혜택을 받게 돼.”

스님은 ‘노 대통령 49재’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다면서 걱정을 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은 멋있어야 하고, 단대해야 하고, 태양같이 밝아야 하고, 소나무 대나무와도 같이 정확할 실천할 줄 알아야 해. 대통령을 잘못 뽑아놓으면 온 국민이 우왕좌왕하고 고생이 많지.”

갖가지 시비가 생겨나지 않지. 자신이 못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 단지 자신의 근본자리인 마음이 확실하지 않고 무명과 번뇌에 쌓여 있기 때문이지. 마음이 정해지고 노력이 뒤따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울 것이 없어. 속가에서도 원(願)을 세워 놓으면 꼭 그대로 되더라고. 비록 늦을 지라도 말이요.”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정하면 얼마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정하고 머무르지 않고 실천한다면 그 안에 도(道)가 들어있단다.

활안 스님은 새벽 2시면 일어나 도량석을 하고 새벽 6시까지 기도정진을 한다. 안거 때마다 7일 동안 옹맹정진을 펴고 있으며, 매년 100일 동안 문 밖 출입을 일체 하지 않는 폐관정진(閉關精進)을 계속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활안 스님의 정진수행 일화는 수없이 많다.

요즘에도 100일 동안 폐관정진을 하시는지 궁금하여 여쭙었다.

“나는 100일 같은 건 상관없고, 내 한 첩은 숨이 떨어져야 한 첩이야. 내 결제는 그런 거야. 모두가 한때거든.”

생각지도 않은 질문에 당황스러웠고, 어서 답 하라고 다그치는데 정신이 아찔했다. “계산이 안 맞는데요”라고 답했다.

“넌 끝도 갖도 없어. 안 맞는데 노예가 되어 버렸어. 넌 언제 부처될래?”

활안 스님은 ‘넌 언제 부처가 될래?’라는 물음을 두 번이나 던졌다. 활안 스님은 세상 사람들이 부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지도 절박하지도 않기 때문임을 일깨워 주었다.

“스님, 마음이 아픕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스님 어떻게 하면 원을 이룰 수 있어요?” 라고 활안 스님 앞에 수없이 던지는 중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다.

“나라는 생각을 버려라. 아(我)가 공(空)해야 바른 공부를 할 수 있지. 나를 버리면 장사를 하든지 도를 닦든지 열부를 하든지 제불성현과 똑 같이 밝은 지혜를 열 수 있어.”

곳은 날씨 탓인지 저녁이 되자 짙은 안개가 천자암을 감싸고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운다. 풍경소리에는 ‘오는 이 마다 한 마디씩 일러 주건만 진실로 수행하는 자 몇이나 될 것이며, 깨달은 자 몇이나 될런지’ 이런 물음이 담겨있는 듯하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53. 효당 최범술 스님

금봉 최영환은 효당 최범술(曉堂 崔凡述, 1904~1979) 스님의 당호이고 본 이름이다. 스님은 경남 사천사람으로 1915년 관양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6년 13세로 다솔사에 들어가 이듬해 해인사 지방학원에 들어가 환경 스님께 제를 받았다.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복사해서 배포하다가 붙잡혀 고문을 받았으며, 1922년 일본에 들어가 만 11년 동안 다이쇼(大正)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하다가 붓다가의의 달마다라 스님으로부터 부처님 진신사리 3과를 얻어 범어사에 탑을 세우기도 했다.

1923년 박렬 등과 함께 ‘불령선인사’를 조직, 일본 천황 암살 계획을 돕기 위해 상해로 폭탄을 운반, 대역사건에 연루되어 8개월간 징역을 살고 3년 동안 조사를 받았다. 1930년 김법린 등과

다. 우리는 1960년 동국대학교에서 발표한 <반야심경 복원소> 강의를 듣고 탄복한 바 있었으나, <십문화쟁론 복원소> 강의를 마치지 못하고, 1979년 7월 10일 76세로 입적했다. 1969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고, 1986년에는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효당 스님은 인상이 한국 사람



였다. 스님은 또 “한국 사람들은 식량(食量)이 많아 장차 먹는 병에 걸리면 약이 없게 된다. 옛 선인들이 밥 먹고 차 한 잔 마시는 다도가 건강에 약이 될 것이니 차를 들(籠)로 알고 마셔야 한다” 하였다.

사실 절에서는 밥 먹고 제방에 돌아가면 얼굴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식후에 차 한 잔으로 피차의 의사를 소통하고, 화합을 도모하면 이것이 화합대중의 법약(法藥)이 되는 것이다.

조그마한 키에 노르스름한 머리를 가져 천재적인 기질이 눈빛에 형형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적었으며, 오히려 스님이 만들어 놓은 학교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 이는 사람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

“서양 사람들은 선교를 위해 병원과 학교를 만들고, 기독교인들은 곳곳에 고아원, 양로원을

한국 다도 중흥조사... 교육·의료·복지사업 강조

비밀결사 ‘민당’을 조직, 조선불교청년동맹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명성여학교를 설립, 교장이 되었다. 1934년 사천에 관명학원을 설립하고 1936년 다솔사에 불교전문강원을 만들었다.

1947년에는 미소공동위원회 불교계 대표로 피임되고, 해인사 주지가 되어 국민대학을 창설했다. 1948년에는 사천·삼천포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어 강원도출신 이종욱 스님과 함께 헌법기초위원이 되기도 했다. 인재불사를 위해 해인중고등학교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1952년 해인대학을 창설, 이사장 및 학장에 취임했다.

특히, 1960년 다솔사 조실로 원효학당과 다도연구실을 만들어 <반야심경 복원소> <십문화쟁론 복원소>를 위한 자료집, <한국 다도> 등을 펴내 한국 다도(茶道)의 중흥조사(中興祖師)가 됐

같지 않고 독일 사람 비슷하게 생겨 얼핏 보기에는 외국 사람처럼 느껴졌다. 천재적인 두뇌에 창조적인 머리를 가져 해인사 주지로 있을 때는 8만대장경 <신간장경 누락판 목록>을 작성하고, 한국 전쟁 이후 흩어진 장경판을 낚아 찾아 정비했다.

“세상의 판도가 달라지니 교육 사업과 의료사업, 복지사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강조하시며 10여개의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인재양성에 앞장섰으나, 그를 계승해 운영할 사람이 없어 걱정했다. 스님을 따라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학문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었으므로 사찰운영이나 분장에 끼어들기를 싫어하고, 오직 자기 공부에만 열심이었던 이유였다.

스님은 항상, “중이 공부를 하여 도를 깨치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두운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강조하

면서 외롭고 쓸쓸한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어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독선기신(獨善其身: 자기 몸만 이롭게 한데에 끌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이 스님의 한탄이었다.

스님 돌아가신 뒤 20년이 못되어 스님의 예언대로 전 세계가 원효 스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의 다도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자 비로써 효당 스님을 생각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스님의 마지막 다도 강의가 생각난다.

“초의 스님이 일지암에 계실 때 작은 화분에 차관을 놓고 끓이는데, 바글바글 끓는 소리가 마치 세상이 끓는 소리로 들려 통째 마셔버리니 다도해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다.”

참으로 통쾌하고도 시원한 다선일치(茶禪一致)의 삼매담(三昧談)이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텝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붓 공 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신 제 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귀의 삼보호움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시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실내용 양초 - 밑받, 약쑥, 식물성 양초
◇ 장엄용 양초 - 아광, 용초, 호랑이, 봉황 (7.5 × 35cm)
◇ 육각초 - 7.5 × 45cm (적색, 핑크, 노랑, 연두, 주황, 백색)

이름

우창산업(삼환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령리 35-16
소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